

공영홈쇼핑 비위행위 의혹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본격 감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주)공영홈쇼핑에 대해 9일부터 대규모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 (공영홈쇼핑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 ▲젓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대행사(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력사의 내부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등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기금(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영 장관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중소기업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와 방만경영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단조치하고 개선함으로써 과거의 악습을 끊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이희완 (044-204-7120)
		담당자	서기관	김성일 (044-204-7063)
			사무관	이근림 (044-204-7123)